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2일 화요일 음 3월 13일 (5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0%	제 주	0%
0%	성 산	0%
0%	고 산	0%
0%	서귀포	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12/17℃
모레	흐리고 비	17/22℃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4℃, 낮 최고기온은 21~24℃로 예상된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해뜸 05:45 / 해짐 19:17	달뜸 15:54 / 달짐 03:54
물때	만조 08:51 / 21:17	간조 02:48 / 15:22

식중독지수 관심 / 감기가능지수 관심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단' 시사할까

5.25% 목전… 경색·침체 우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할지 주목된다.

연준은 3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인상 폭 등을 발표하고, 뒤이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3월 0.2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금리 상단을 5.0%까지 끌어올렸고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금리 상단이 5.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였던 지난해와 달리,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인 가운데 은행권 불안, 신용 경색, 경기 침체,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에 대한 우려 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윌콕스는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 후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치인) 2%로 돌려놓기 위해 할 만큼 했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준 성명서에 정책 경로와 은행 시스템, 노동시장을 어떻게 특징지을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이윤형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구좌·안덕'과 '마대기빌레'에 깃든 역사를 찾아서

문영택
(사)질토래비 이사장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한 이는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H. 카이다. 천년왕국 탐라국은 고려와 몽고 시대를 거치며 1105년 탐라군으로, 1214년 제주군으로, 1295년 제주목으로, 1300년에는 대촌(제주시)과 더불어 동도와 서도의 중심 마을인 15현으로 이어졌다.

조선에 와서는 한양과 3읍이 근간이 돼 지명에 좌우, 동서, 신구 등이 깃들며 마을들이 이어졌다. 1609년(광해1) 판관 김치 시절 제주목과 정의현은 좌면·우면·중면, 대정현은 좌면·우면으로 분면돼 이어졌다. 그리고 1798년 제주목 우면의 동쪽은 신우면(애월읍), 서쪽은 구우면(한림읍·한경면)으로, 제주목 좌면은 1874년이 돼 신좌면(조천)과 구좌면으로 나눠졌다. 특히 일제는 수백 년 이어져 온 좌·중·우 중심의 면 이름을, 면 소재지가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바꾸도록 1935년 강제했다. 그리하여 신우면은 애월면으로, 구우면은 한림면으로, 신좌면은 조천면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서귀면, 남원면, 표선면, 중문면 등도 이 시기에 등장한다. 반면, 구좌면은 면 이름이 그대로 남아 이어지고 있다. 당시 구좌면의 면 소재지는 평대리에 있었다. 구좌면만이 유구한 옛 명칭을 사용하게 된 뒤에는 평대리보다 고촌이자 대촌인 김녕·하도·세화리 등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라 전한다.

면 이름의 마을이 없는 안덕면은 어떤가. 넓은 대정현 우면을 1874년 분면해 생긴 곳이 대정현의 중면으로, 지금의 안덕면 지역이다. 당시 서광리에 있던 면사무소가 감산리를 거쳐 화순리로 이전돼 1935년 면 이름 개정 시 화순면으로 신청했으나, 전라도에도 같은 지명인 화순이 있어 반려됐다. 일제가 다시 신청하도록 하니, 안덕계곡에서 따온 안덕면으로 재신청해 오늘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면 이름에도 일제의 정체성 흔들기에 대한 저의가 깃들어 있음이다.

반면 제주의 역사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마대기빌레'라는 지명도 있다. 10소장이 펼쳐진 한라산 품 안에서 자란 수많은 말들은 한양을 비롯한 국내외로 실려 가기도 했다. 제주마가 떠난 포구로는 조천포·화북포·애월포, 당포, 명월포 등이다. 특히 지금의 한림읍 지경인 제6소장에서 몰아온 말들은 명월진성 밖에 위치한 마대기빌레에서 순풍이 불 때까지 대기시켰다가 명월포(옹포)를 통해 실려 나가곤 했다. 너럭바위와 곶자왈 지대인 마대기빌레는 지금, 농경지와 주택지 등으로 바뀌어 있다.

그 옛날 마대기빌레 일대는 바위투성이 지대를 농경지로 개척하려 애쓴 선인들이 흘린 땀방울의 현장이다. 척박한 빌레를 일궈 밭을 경작한 선인들의 억척스러움과 고단한 일상이 묻어나던 삶의 현장이다. 깊게 박힌 돌멩이를 뽑아내어 황무지를 일구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선인들의 검질긴 생명력을 생각하게 하는 역사의 현장인 것이다.

열린마당

공무국외출장 취지 퇴색되지 않길

강동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최근 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말들이 많다. 타 시도의 경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외유성 연수 사례가 지적되고 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사례와 참여자들에 대한 적절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나는 평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믿는다. 그 옛날에도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청나라에 가서 선진 문물과 다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 모순을 비판할 수 있었다. 시대마다 통신사, 사절단, 특사라는 명칭만 다를 뿐 우리 선조들도 다양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지금은 다른 나라와 교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제주도는 최근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 운영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거대한 소비시장인 아세안+α 시장 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거점지 마련에 분주하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난해부터 몽골과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방안을 협의하고 교류 협력사업 차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교류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 출장이 필요하고 협력을 위해 실무 차원의 발 빠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 국외출장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느낀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까다로운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출장 결과 보고를 강화하고 있다.

견문을 넓히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시작된 공무국외출장의 순수한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슈하드의 '친절의 벽'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이란 북동부 산지에 위치한 도시 '마슈하드'에는 옷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담벼락에 옷을 걸어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매서운 추위는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아주 힘든 겨울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 노숙자들을 걱정하던 익명의 시민이 거리에 나와 알록달록한 색으로 벽을 칠한 뒤 벽에 못을 박고 옷걸이를 걸어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필요 없는 물건은 두고 가세요. 필요한 물건은 가져가세요"라고 써 놓았는데 이 벽이 바로 마슈하드의 '친절의 벽'이다.

마슈하드 시민들은 따뜻한 옷가지들을 들고나와 친절의 벽에 걸어두며 열정적으로 호응했고 이 훈훈한 이야기는 곧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이란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친절의 벽이 등장하게 됐다. 옷뿐만 아니라 가방, 신발, 모자 심지어 빵집은 바구니 가득 빵을 가져다 놓았고, 길거리 한 구석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버스커들은 팁을 모으는 통에 돈이 필요한 분은 가져가도 좋다는 글귀를 적어 놓기도 했다.

우리가 알던 벽은 공간과 공간을 나누고, 안과 밖을 경계 짓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차가움이라면 친절의 벽은 특별한 예산이 없어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무관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낭만적인 벽이라고 말하고 싶다.

노숙자를 걱정하는 선한 마음이 만들어 낸 나비효과가 아직도 이란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쉽게 말하고, 쉽게 포기하고, 빨리 편해지는 건 아닌지 조용히 반성해 본다.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핵심물질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au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밭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